

목어

100년전 한·미·일

“지금 지구의 동서 정반대의 지점에서 미국과 러시아는 서진과 동진을 시작했으며, 어디에선가 충돌하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160여년 전 불란서의 정치학자 A. 도 푹빌의 전망이었다. 결국 그 충돌 지점이 한반도였으며, 19세기 말에서 오늘날까지 한민족은 계속 그 여파에 시달려왔다. 일본은 재빠르게 국제역학의 흐름을 감지하고 1905년 미국 대통령 태프트(Taft)와 밀약을 맺어 일본이 조선을, 미국이 필리핀을 점유할 것을 다짐했다.



일본은 한반도가 강한 통일국가 될 것을 은근히 두려워한다. 미국의 전 대통령 클린턴이 평양 방문을 서둘러 있을 때 일본은 남치 일본인의 문제를 구실 삼아 클린턴의 평양 방문을 방해했을 정도다. 대북한 강경노선을 취하는 부시 정권의 수립은 일본과의 강한 우대를 전제로 한다. 부시는 NMD전략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 분명하고, 일본 또한 군비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복한의 미사일 위협은 좋은 구실이 된다. 최근 일본의 우경화도 이런 경향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교과서의 개악은 일본 군국주의를 찬미하고 조선의 식민지화를 합리화하고 있다.

오늘날 미국의 보수화와 일본의 우경화는 100년 전 미일간의 밀약을 상기시키는 구도다. 이에 대해 우리는 하나의 민족임을 자각해야 한다. 대국적 견지에서 100년의 미래를 내다보고 역사 흐름의 방향을 직시하고 행어나 지역 차별이나 남북한 문제를 정치적 도구로 삼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인류 문명사는 거대한 정보화·국제화의 흐름이며, 때로는 역류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결국엔 상생의 길을 걷게 된다. 역사의 시대적 상황 구도는 갈아질 수 있어도 결코 시간의 흐름을 무의미하게 되풀이하지 않는다. 1세기 전의 한국인과 오늘의 한국인은 같을 수 없으며, 그간 우리는 민족적 역량을 길러왔으며, 미래를 직시하는 이성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한다.

김응운 (한양대 명예교수·본지 논설위원)

종회 안건 선정...통과는 불투명

조계종 사면 어떻게 되나

본사 주지 19명 등 1080명 사면·복권운동 서명 동참

정화회의 소송취하 관련

종헌 개정안이 20일 개최한 중앙종회 안건으로 상정됨으로써 사면 논의가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덧붙여 '조계종 승려 사면복권 운동본부(사면운동본부, 상임대표 원성)'가 20일 사면·복권을 요청하는 청원서와 탄원서를 종회와 총무원장에게 제출한 것도 사면 논의를 뜨겁게 달궜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면운동본부는 20일 승려의 사면·복권 청원서와 탄원서를 중앙종회와 총무원에 냈다. 사면운동본부는 이날 "지난해 9월부터 3월까지 전국을 순회해 본사주지 19명과 종진스님 1080명이 사면·복권을 위한 서명운동에 동참했다"고 밝히고 "지난 날 종단과 의견을 달리 하고 있는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너그럽게 안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명에는 조계사 금산사 화엄사 관음사 월정사를 제외한 19개 교구본사 주지스님들과 종진 성우 철우 홍규 무비 명성 종광 스님 등 1080명이 참여했다.

그러나 여전히 종회위원들 사이에서는 사면에 대해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종진 종회위원은 "아직 시기가 무르익지 않았다"고 잘라 말하고 "정화개혁회의에서 계속 사회법에 제소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면



이 가능하겠느냐"고 말했다.

이 스님은 또 "사면에 대해 적극적으로 스님들도 정화회의에서 상급법원에 상고한 이후 사면 얘기를 꺼내지 않는다"고 집행부 쪽의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 집행부에서는 2월이면 재판이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하고, 부처님 오신날을 전후한 사면 실시 가능성에 비중을 두었다.

현재 정화회의의 제소에 의해 진행중인 재판은 드 건이다. 종회위원 자격상실 확인 소송은 지난 1월 항소심에서 정화회의가 패소했으나, 대법원에 상고했다. 총무원장 부존재 확인 소송도 항소한 상태이다.

정화회의에서 모든 소송을 취하해야 사면 실시가 가능하다고 보는 시각이 대체적이라는 것이 종회 주변의 분위기이다. 따라서 현재 상황이라면 종회위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종헌 개정은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사면운동본부의 한 스님은 13일 기자회견에서 정화개혁회의에 소송의 취하를 요청할 의향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사면 논의가 정점에 이르면 소송을 취하할 가능성도 있다. (사면)가 가시화되면 양쪽 여론들이 만날 것으로 안다"고 말해 여론을 냉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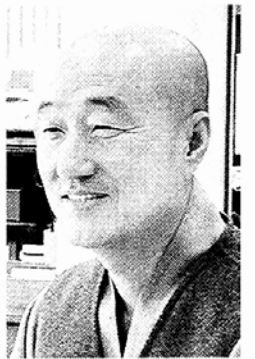
이와 함께 사면운동본부는 "이후 승남 30년 이상의 스님들을 대상으로 2차 서명운동을 펼칠 계획이며, 사면·복권 청원이 관철되지 않으면 별반 폐지 운동, 서명사 대회 개최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 사면·복권 문제를 종단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시켰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사면·복권을 둘러싼 논란이 과열될 경우 청사 신축, 금강산 신계사 복원 등 대형불사를 앞둔 조계종이 자칫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성운 기자(swjung@buddhapia.com)

봉선사 새 주지 취임 일면 스님 "대중공의제 도입 투명-공정성 확보"

일면스님이 17일 조계종 제25 교구본사 봉선사 새 주지로 취임, 업무를 시작했다. "대중스님들을 잘 보필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크게 느낀다"는 말로 취임 소감을 대신한 일면스님은 "봉선사 교구를 본말사 운영의 바람직한 모델로 제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일면스님이 17일 조계종 제25 교구본사 봉선사 새 주지로 취임, 업무를 시작했다.

일면스님이 17일 조계종 제25 교구본사 봉선사 새 주지로 취임, 업무를 시작했다. "대중스님들을 잘 보필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크게 느낀다"는 말로 취임 소감을 대신한 일면스님은 "봉선사 교구를 본말사 운영의 바람직한 모델로 제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일면스님이 17일 조계종 제25 교구본사 봉선사 새 주지로 취임, 업무를 시작했다.

일면스님이 17일 조계종 제25 교구본사 봉선사 새 주지로 취임, 업무를 시작했다. "대중스님들을 잘 보필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크게 느낀다"는 말로 취임 소감을 대신한 일면스님은 "봉선사 교구를 본말사 운영의 바람직한 모델로 제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일면스님이 17일 조계종 제25 교구본사 봉선사 새 주지로 취임, 업무를 시작했다. "대중스님들을 잘 보필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크게 느낀다"는 말로 취임 소감을 대신한 일면스님은 "봉선사 교구를 본말사 운영의 바람직한 모델로 제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일면스님이 17일 조계종 제25 교구본사 봉선사 새 주지로 취임, 업무를 시작했다. "대중스님들을 잘 보필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크게 느낀다"는 말로 취임 소감을 대신한 일면스님은 "봉선사 교구를 본말사 운영의 바람직한 모델로 제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일면스님이 17일 조계종 제25 교구본사 봉선사 새 주지로 취임, 업무를 시작했다. "대중스님들을 잘 보필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크게 느낀다"는 말로 취임 소감을 대신한 일면스님은 "봉선사 교구를 본말사 운영의 바람직한 모델로 제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일면스님이 17일 조계종 제25 교구본사 봉선사 새 주지로 취임, 업무를 시작했다. "대중스님들을 잘 보필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크게 느낀다"는 말로 취임 소감을 대신한 일면스님은 "봉선사 교구를 본말사 운영의 바람직한 모델로 제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승가 대표교육기관 위상 확립 '재도약'

중앙승가대 김포학사 시대

재정자립·우수교원확보 '과제'

중앙승가대학교가 14일 김포학사 준공식 및 발전기원법회를 갖고 제2의 출발을 선언했다. 1979년 개교 이래 수 차례에 걸친 이전, 빈약한 재정 등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20년이란 역사를 지탱해온 중앙승가대학은 김포학사 이전을 계기로 조계종의 대표적 승가교육기관으로 위상확립을 꾀하게 됐다. 나아가 종학을 체계화 극대화시키고 종단교육 및 종학 개발, 포교프로그램 개발의 중심도량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기대를 짊어졌다.

중앙승가대학이 21세기 새로운 승가상을 확립하는 교육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재정 자립, 대학원 설립, 우수교원 확보, 입학정원 미달사태 등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관건이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중앙승가대의 위상 문제이다. 현재 중앙승가대학이 종단 기본교육기관으로 지정돼 사미·사미니 교육을 담당하게 되어 있지만, 현재 재학생 중에서 비구·비구니 비율이 38%를 차지하고 있다. 또 재학 학인과 등문들도 중앙승가대 성격에

대해 사회적식 교육기관과 고급인재 양성기관, 재교육기관이라는 응답이 80%를 차지하고 있어 위상 재정립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우수교원 확보도 시급하다. 현재처럼 재학생 정원미달로 인해 법정 교원 21명을 채우지 못해 16명의 교원만 재직하는 등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중앙승가대가 학문적 경쟁력을 갖추고 국제적인 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소 기능의 활성화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마지막으로 재정자립도 확충이다. 김포학사로 이전되면서 예상되는 년 30억원에 이르는 운영비를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교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다. 종단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원의 경우 전체 예산 34억원에서 중앙승가대에 지원되는 예산이 10억8천만원이나 돼 30%에 달하는 기초, 기본, 재교육, 특수교육기관 운영에 차질을 빚을 정도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승가대 운영의 재정자립 없이는 종단의 미래도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 승가대의 위상을 변화시켜 입학정원을 확보하는 것과 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설립, 종학연구소 활성화, 인문학사 활용, 후원회 발족 등의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중앙승가대학을 육성시킴으로써 교육과 복지, 포교 등 전문승가를 양성하여 승가교육 전반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인식전환도 절실하다.

김원우 기자(wwkim@buddhapia.com)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발행·편집인 : 김광삼 대표전화 02-737-8881
 인쇄인 : 김규석 본지는 신문윤리규칙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창종 제 21주년 기념대법회

증명고문 영산일공 법신, 송산, 선명, 효계, 보인

보행위원
 위원장 법륜
 부위원장 대월, 성견, 평신, 정관, 선진
 위원 보광, 체인, 체도, 보월, 체승, 체의, 호연, 은혜, 혜림, 도광, 영운, 해공, 명문, 체두, 보운, 보정

추진위원
 위원장 성관
 부위원장 벽봉, 인관, 천호
 위원 정광, 혜광, 선덕, 진연, 체명, 체정, 석천, 성육, 보선, 보각, 태종, 법성, 청해, 청암, 광명, 혜인, 보광, 정수, 혜성, 체혜, 체선, 지관

사단법인 대한불교 원웅종

- 일시 : 불기 2545년 3월 26일 (음 3월 2일) 오전 11시
- 문의 : 02)853-0531 FAX : 02)853-0532
- 장소 : 서울시 구로구 구로 2동 413-80 (한빛빌딩 4층) 원웅종 총무원